

2019년 6월 2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비둘기적 FOMC 결과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는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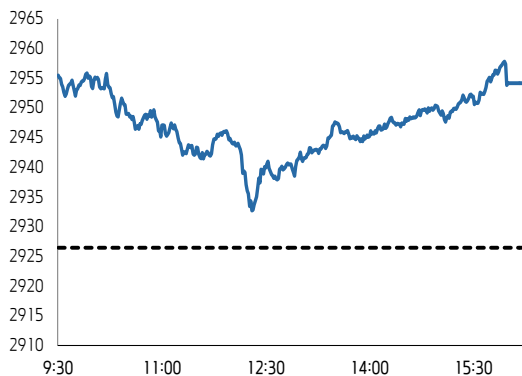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비둘기적 FOMC 결과와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어 S&P500 이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러나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강경 발언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매물 출회되며 한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 오후 들어 미-중 정상회담 기대속에 재차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마감(다우 +0.94%, 나스닥 +0.80%, S&P500 +0.95%, 러셀 2000 +0.51%)

미 증시는 ①비둘기적 FOMC 결과 ②미-중 무역협상 기대 ③미-이란 마찰 우려 등으로 변화. S&P500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는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FOMC 결과와 함께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특히 연준은 금융시장의 바렘처럼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 여기에 시장에서 타결 가능성이 없고,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 전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협상단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 중국 상무부 또한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긍정적인 전화 통화와 양국 협상 대표들의 소통 소식으로 투자심리 개선. 이 영향으로 오늘 미 증시에서 산업재, 반도체, 물류업종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

반면, 장중 미국과 이란과의 마찰로 중동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점은 부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영공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미국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 트럼프는 이에 대해 매우 큰 실수를 범했다고 언급. 국제유가는 이 여파로 5.4% 급등. 한편, 미 증시는 트럼프가 미국이 공습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알 것” 이라고 언급하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 하기도 했음. 그러나 이후 이란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현장 지휘자의 실수라고 언급하자 재차 반등을 보이는 등 관련 소식에 미 증시의 변동성 확대. 향후 미국의 대 이란 군사 행동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브리핑은 오늘 있을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31.29	+0.31	홍콩항셱	28,550.43	+1.23
KOSDAQ	727.32	+1.34	영국	7,424.44	+0.28
DOW	26,753.17	+0.94	독일	12,355.39	+0.38
NASDAQ	8,051.34	+0.80	프랑스	5,535.57	+0.31
S&P 500	2,954.18	+0.95	스페인	9,208.50	-0.25
상하이종합	2,987.12	+2.38	그리스	836.78	-0.86
일본	21,462.86	+0.60	이탈리아	21,361.44	+0.6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업종 급등

EOG 리소스(+3.16%), 데본에너지(+4.31%) 등 원유 시추 업체와 솔룸베르거(+4.77%), 할리버튼(+4.91%) 등 원유 서비스 업종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와 무역협상 기대감이 유입되며 국제 유가가 6% 가까이 급등하자 상승 했다. 제너럴 다이내믹(+2.50%), 유나이티드 테크(+2.58%), 록히드 마틴(+1.99%) 등 방위산업 업체들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상승 했다.

마이크론(+0.62%) 등 반도체 업종과 캐터필라(+2.31%), 디어(+1.76%)와 3M(+1.87%) 등 산업재와 UPS(+1.81%), 페덱스(+1.16%), CSX(+2.14%), 노포크(+2.03%) 등 물류회사 등은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자 상승 했다. 오라클(+8.18%)은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상승 했다. 어도비(+3.74%), 세 일즈포스(+1.99%)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카니발(-7.65%)은 미 정부가 쿠바에 대한 크루즈 금지로 올해 매출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자 급락 했다. 로알 캐리비안(-3.19%)도 동반 하락 했다. HCA 헬스케어(-1.55%) 등 병원과 CVS헬스(-1.86%) 등 헬스케어 보험 관련 업종은 트럼프가 헬스케어 비용 투명성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05%	대형 가치주 ETF(IVE)	+0.83%
에너지섹터 ETF(OIH)	+4.12%	중형 가치주 ETF(IWS)	+0.80%
소매업체 ETF(XRT)	+0.42%	소형 가치주 ETF(IWN)	+0.43%
금융섹터 ETF(XLF)	+0.44%	대형 성장주 ETF(VUG)	+0.97%
기술섹터 ETF(XLK)	+1.46%	중형 성장주 ETF(IWP)	+0.7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4%	소형 성장주 ETF(IWO)	+0.58%
인터넷업체 ETF(FDN)	+0.65%	배당주 ETF(DVY)	+0.76%
리츠업체 ETF(XLRE)	+0.60%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4%
주택건설업체 ETF(XHB)	+1.1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10%
바이오섹터 ETF(IBB)	+0.42%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44%	하이일드 ETF(JNK)	+0.55%
곡물 ETF(DBA)	+0.12%	물가연동채 ETF(TIP)	+0.56%
반도체 ETF(SMH)	+1.16%	Long/short ETF(BTAL)	-0.3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6.74	+2.21%	+3.53%	+0.14%
소재	362.98	+1.21%	+0.08%	+6.80%
산업재	653.07	+1.62%	+2.78%	+3.69%
경기소비재	952.29	+0.65%	+2.00%	+4.64%
필수소비재	605.44	+0.81%	+0.46%	+1.99%
헬스케어	1,080.43	+0.40%	+2.38%	+4.24%
금융	453.50	+0.50%	+0.91%	+1.30%
IT	1,381.59	+1.43%	+2.94%	+5.85%
커뮤니케이션	164.91	+0.63%	+2.70%	+0.29%
유틸리티	308.15	+0.54%	+1.70%	+2.69%
부동산	236.91	+0.53%	+2.34%	+5.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8% MSCI 신흥 지수 ETF 도 1.47%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564 계약)에 힘입어 0.50pt 상승한 276.6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7.5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장중 증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변동성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상승 했다. 전일 중국 증시도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지자 2.4% 급등 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비둘기적 행보도 중요하지만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연준의 깜짝 비둘기적 행보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증시 변화 요인인 FOMC 결과, 미-중 무역협상, 이란의 드론 격추는 전일 한국 증시 장중에 나왔던 내용들이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란의 드론 격추에 대해 오늘 미국의 브리핑이 있을 것이며 관련 내용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2 년 연초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비둘기적 연준의 행보로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견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2.2 만건)을 하회한 21.6 만건을 기록해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줬다. 4 주 연속 신청건수(21 만 7,750 건→21 만 8,750 건)는 증가 했다.

6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16.6)이나 예상치(11.0)을 하회한 0.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11.0→8.3), 고용지수(18.2→15.4) 등이 하락한 반면 재고지수(-3.1→2.4)는 증가 했다. 최근 뉴욕주 제조업지수 부진에 이어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도 부진해 7 월 발표되는 ISM 제조업지수 둔화가 불가피해졌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이란의 미국 드론 격추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곧 알게 될 것” 이라는 발언 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백악관이 의회 지도부와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해 조만간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과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 였다.

달러화는 비둘기적 FOMC 결과가 이어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제조업지표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파운드화는 보리스 존스 전 외무장관이 차기 총리 당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되기도 했으나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달러 약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부진한 제조업지표 및 비둘기적 FOMC 결과 영향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특히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0 년물이 장중 한 때 2.0%를 하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되자 낙폭이 축소되었다. 여기에 트럼프가 이번 이란의 드론 격추가 현장 지휘관의 실수라고 언급하는 등 확전 자재를 하자 상승 전환 했다.

금은 전일 비둘기적 연준의 FOMC 결과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 속에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46%, 철근은 0.29%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7.07	+5.74	+8.62	Dollar Index	96.645	-0.49	-0.38
브렌트유	64.45	+4.25	+5.12	EUR/USD	1.1286	+0.53	+0.09
금	1,396.90	+3.57	+3.96	USD/JPY	107.38	-0.67	-0.92
은	15.492	+3.57	+4.03	GBP/USD	1.2701	+0.49	+0.21
알루미늄	1,781.00	-0.17	-0.34	USD/CHF	0.9822	-1.21	-1.19
전기동	5,973.00	+0.93	+1.96	AUD/USD	0.6918	+0.54	+0.04
아연	2,468.00	-0.40	-0.36	USD/CAD	1.3201	-0.59	-0.95
옥수수	461.00	+1.71	+1.15	USD/BRL	3.8398	-0.54	-0.72
밀	531.75	+0.95	-1.35	USD/CNH	6.8599	-0.50	-1.00
대두	941.00	+1.32	+2.81	USD/KRW	1162.10	-1.19	-1.77
커피	101.80	+3.93	+2.06	USD/KRW NDF1M	1157.53	-1.18	-2.0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025	+0.16	-6.96	스페인	0.389	-1.10	-15.10
한국	1.550	-4.50	-7.70	포르투갈	0.533	-1.40	-10.60
일본	-0.165	-2.80	-5.20	그리스	2.548	+8.10	-14.10
독일	-0.318	-3.00	-7.70	이탈리아	2.142	+3.60	-21.30